

#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의 比較考察

## -腰痛을 중심으로-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金洪均

### Comparative investigation on both 『Eui Rim Chwal Yo』 and 『Dong Eui Bo Gam』

Kim Hong-kyoon

Author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tents in 『Eui Rim Chwal Yo』 are applied widely in 『Dong Eui Bo Gam』. Furthermore, 『Eui Rim Chwal Yo』 tends to have clear indication of sources unlike 『Dong Eui Bo Gam』 which does not. Further research into this factor is desirable in the future.

---

## I. 序論

조선시대 중기는 우리 의학의 발달사에 있어서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는 중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우리 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가져왔던 일련의 의서 발간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고, 특히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세계의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몇몇의 의서들은 중국으로 일본으로 아시아 각국에 그 위세를 떨쳤던 시기였다. 그 가운데서도 『醫林撮要』는 우리 의학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東醫寶鑑』의 완성에 起爆劑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醫林撮要』는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明代의 의학을 재빠르게 흡수하고, 깊이 있는 醫論을 통해 체계적이고도 통일적인 정리를 함으로써, 『東醫寶鑑』은 『醫林撮要』를 그 모범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許浚은 楊禮壽의 『醫林撮要』를 폭넓게

수용하여 인용하였고, 그의 공을 잊지 않고 국내 개인저작의 醫書로서는 오직 『醫林撮要』 만을 유일하게 인정하여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論者는 여기서 腰痛을 중심으로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을 비교·고찰함으로써, 『醫林撮要』가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醫林撮要』에 담겨 있는 사상적 흐름과 의사학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II. 本論 및 考察

### 1. 구성체계에 따른 고찰.

전체적으로 요통에 관하여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의 두 책은 모두 立論과 治方으로 되어 있다. 『醫林撮要』는 立論에 각 病因에 따른 분류와 單方 및 脈法과 대표적 治方을 소개하고 ‘腎着’을 附門으로 설정하였으며, 治方に 각 처방 및 灸法을 기록하고 있다. 『東醫寶鑑』은 立論에 개요와 脈法 및 분류를 하였고, 다시 病因에 따른 立論과 治方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單方 및 鍼灸法을 설정하고 있다.

#### 1) 腰部의 개요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에서 모두 腰部에 관하여 腎之府로서 大關節<sup>1)</sup>임을 전제하고 모든 경락이 腎과 腰脊에 연관되어 있음<sup>2)</sup>을 설명하고 있다.

#### 2) 腰痛의 분류

『醫林撮要』는 腎虛, 風, 寒, 挫閃, 瘀血, 濕痰, 心血耗散, 失志傷腎, 鬱怒傷肝, 憂思傷脾의 10종으로 나뉘고 있고, 『東醫寶鑑』은 腎虛, 痰飲, 食積, 挫閃, 瘀血, 風, 寒, 濕, 濕熱, 氣의 10종으로 나뉘고 있다. 『醫林撮要』의 이러한 분류는 『醫學正傳』<sup>3)</sup>에서 虛·風·寒·挫閃·瘀血·濕痰으로 분류하고, 『三因方』<sup>4)</sup>에서 內因腰痛의 失志傷腎, 鬱怒傷肝, 憂思傷脾로 분류한 것을 조합한 것인데, 楊禮壽는 여기에 心血耗散을 첨가하였고 虞天民의 견해를 중시하여 腎虛腰痛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東醫寶鑑』은 『丹溪心法』<sup>5)</sup>에서 濕熱·腎虛·瘀血·挫閃·痰積이라 분류하고, 『醫學入門』<sup>6)</sup>에서 腎虛·寒·熱·風·內傷失志·憂思傷脾·濕痰·食積·閃挫·勞力傷腎·房慾傷腎으로 분류한

1) 楊禮壽, 『醫林撮要』, 308쪽.

2) 許浚, 『東醫寶鑑』, 278쪽.

3) 虞天民, 『醫學正傳』, 363쪽.

4)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文淵閣四庫全書, 734冊)』, 卷十三, 340쪽.

5) 朱震亨, 『丹溪心法』, 298쪽.

6)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下)』, 1514~1516쪽.

것을 조합한 것인데, 李梴의 견해를 중요시하여 분류하고 있다.

### 3) 腰痛의 처방

『醫林撮要』에는 補腎丸, 熨烙當歸散, 牛膝酒, 一粒金丹, 腎着湯, 三因靑娥圓, 三因立安丸, 補骨脂丸, 獨活湯, 拈痛湯, 獨活寄生湯, 羌活續斷湯, 蒼朮湯, 加味四物湯, 舒筋散, 補髓丹, 蒼朮復煎散, 地龍散, 當歸黃芪湯, 補腎湯, 立安散, 補陰湯, 調榮活絡湯, 滋陰補腎丸, 速效散, 七味蒼栝散, 摩腰膏, 杜沖酒, 四物湯加味方, 大承氣湯加味方, 二陳合四物加味方, 加減八味圓加味方, 八味圓, 五積散, 代灸塗臍膏 등 모두 35개 처방이 응용되고 있다.

『東醫寶鑑』은 靑娥元, 加味靑娥元, 壯本丹, 局方安腎元, 補髓丹, 九味安腎丸, 百倍丸, 杜仲丸, 補腎湯, 速效散, 獨活湯, 乳香趁痛散, 如神湯, 舒筋散, 立安散, 新麴酒, 破血散疼湯, 川芎肉桂湯, 地龍散, 加味龍虎散, 朮附湯, 通經散, 七味蒼栝散, 煨腎散, 調氣散, 腎着湯 등 모두 26개 처방이 응용되고 있다.

이들 『醫林撮要』의 35개 처방 가운데, 『東醫寶鑑』과 일치된 처방은 一粒金丹<sup>7)</sup>, 腎着湯, 三因靑娥圓<sup>8)</sup>, 拈痛湯<sup>9)</sup>, 獨活寄生湯, 羌活續斷湯, 舒筋散, 補髓丹, 蒼朮復煎散, 地龍散, 補腎湯, 立安散, 速效散, 七味蒼栝散 등의 14개 처방인데, 이들은 다시 『東醫寶鑑』에서 「腰門」과 「足門」 및 「風門」으로 나뉘어 분산되고 있다. 즉, 「腰門」에 腎着湯, 三因靑娥圓, 舒筋散, 補髓丹, 地龍散, 補腎湯, 立安散, 速效散, 七味蒼栝散 등의 9개 처방과, 「足門」에 一粒金丹, 拈痛湯, 獨活寄生湯, 羌活續斷湯 등의 4개 처방, 그리고 「風門」에 羌活續斷湯의 1개 처방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의 「腰門」이 26개 처방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 중에 14개 처방이라는 것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일치된 처방 14개는 모두 『醫林撮要』에서 『東醫寶鑑』으로의 영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물론 이들 모두가 許浚이 『醫林撮要』에서 가려 뽑은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그렇다는 정황은 충분히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引用文獻에 대한 고찰”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어쨌거나, 『醫林撮要』의 35개 처방 가운데 14개 처방이 『東醫寶鑑』과 일치성을 보인다는 것은, 그 당시의 이들 처방은 楊禮壽에게 있어서나 許浚에게 있어서나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같은 內醫院에 근무하면서 선후배지간의 실질적인 학문적 영향하에 있었음은 분명한 것이다.

7) 『東醫寶鑑』에는 ‘捉虎丹’이라고 되어 있으나 처방내용은 같다.

8) 『東醫寶鑑』에는 ‘靑娥元’이라 되어 있지만, 처방내용은 같다. 앞의 ‘三因’이 책명인 『三因極一病證方論』을 의미하므로 빼버린 것으로 보인다.

9) 『東醫寶鑑』에는 ‘當歸拈痛湯’이라 되어 있는데, 처방 내용은 둘 다 같다. 當歸拈痛湯에 ‘黃芩’을 추가한 것이 ‘拈痛湯’이라고 楊禮壽의 주석에 보이지만, 許浚의 ‘當歸拈痛湯’이나 楊禮壽의 ‘拈痛湯’이 다 같이 ‘黃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같은 처방으로 본다.

4)腰痛의 脈法

요통의 맥은 모두 沈弦한 것을 위주로 하여, 病因에 따른 兼脈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醫林撮要』에는 “脈必弦而沈, 弦帶浮者風, 緊者寒, 濡細者濕, 實者挫閃. 又云沈爲滯, 弦爲虛, 澹者瘀血, 緩者濕, 伏者痰, 大者腎虛”<sup>10)</sup>라 되어 있고, 『東醫寶鑑』에는 “腰痛之脈, 皆沈弦, 沈弦而緊者 爲寒, 沈弦而浮者 爲風, 沈弦而濡細者 爲濕, 沈弦而實者 爲挫閃(脈經). 腰痛脈, 必沈而弦, 沈爲滯, 弦爲虛, 澹是瘀血, 緩者是濕, 滑者伏者是痰, 大者是腎虛也(丹心)”<sup>11)</sup>라 되어 있다.

許浚은 『東醫寶鑑』에서 앞의 것은 『脈經』을 인용한 것이라 했고, 뒤의 것은 ‘丹心’이라 했으니 『丹溪心法』을 인용한 것이라 했다. 그런데, 崔秀漢은 그의 『朝鮮醫籍通考』에서 『東醫寶鑑』에 인용된 『脈經』은 西晉시대의 王叔和가撰한 『脈經』이라 했다<sup>12)</sup>. 그러나, 王叔和의 『脈經』에는 요통의 맥이 약간 있긴 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다. 또한, 뒤에 『丹溪心法』에서 인용되었다고 하는 문장도 실제로 『丹溪心法』의 문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sup>13)</sup> 이 두 문장은 오히려 『醫學正傳』의 문장과 일치한다.<sup>14)</sup> 즉, 許浚은 『醫學正傳』에서 “脈經曰……, 丹溪曰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醫學正傳』에 보이는 “脈經曰……”의 『脈經』은 王叔和의 『脈經』 보다는 오히려 『東垣十種醫書』에 나오는 宋代 崔嘉彦이撰한 『脈訣』과 같다.<sup>15)</sup> 곧, 王叔和의 『脈經』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崔嘉彦이 『脈訣』을 지었고, 그 『脈訣』을 陳撲并이 『東垣十種醫書』에 넣어 편집하였고, 이를 다시 『丹溪心法』에 인용하였으며, 虞搏이 朱震亨의 이론을 받아들여 그의 『醫學正傳』에 정리해 놓은 것을 許浚이 『東醫寶鑑』에 이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楊禮壽는 虞搏의 『醫學正傳』을 모태로 삼아 이제까지 醫論을 정리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도 『醫學正傳』을 기본으로 삼았을 것인데, 그 『醫學正傳』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醫學正傳』에 인용된 것은 일일이 그 인용서적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0) 楊禮壽, 앞의 책, 308쪽.

11) 許浚, 앞의 책, 278쪽.

12)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72쪽.

13) 朱震亨, 앞의 책, 298·300쪽.

“脈大者 腎虛……, 脈澹者 瘀血……, 脈緩者 濕熱…….”

“脈若弦而沈者 爲虛, 沈者 爲滯, 澹者 瘀血, 緩者 爲濕, 滑與伏者 是痰.”

14) 虞天民, 앞의 책, 363쪽.

“脈經曰, …腰痛之脈, 皆沈弦, 沈弦而緊者 爲寒, 沈弦而浮者 爲風, 沈弦而濡細者 爲濕, 沈弦而實者 爲挫閃.” “丹溪曰, 脈必沈而弦, 沈爲滯, 弦爲虛, 澹者是瘀血, 緩者是濕, 滑者伏者是痰, 大者是腎虛也.”

15) 李東垣 외5人, 『東垣十種醫書』, 9쪽.

“腰痛之脈, 皆沈而弦, 兼浮者風, 兼緊者寒, 濡細則濕, 實則閃肭……”

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전체적으로는 『醫學正傳』의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醫學正傳』에 인용된 『脈經』은 『醫學正傳』과는 달리, 『東垣十種醫書』에 실려 있는 『脈訣』을 인용하되, 그 속에 있는 ‘實則閃肭’이라는 어색한 표현을 ‘實者挫閃’이라 고쳐, ‘~者 ~’라는 문장의 통일성도 갖추고 ‘挫閃’이라는 확실한 표현을 함으로써, 오해의 여지도 불식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뒤에 인용된 『丹溪心法』도 확인하여, 『醫學正傳』에 ‘滑者伏者是痰’이라 표현된 어색한 부분을 『丹溪心法』의 같은 부분에서 찾아 ‘伏者痰’이라 고쳐 놓았음을 보아도, 그대로 옮겨놓는 『東醫寶鑑』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5) 單方

『醫林撮要』에서는 病因에 따라 단방의 加味法을 설명하고 있다. 즉, 腎虛에는 杜冲 · 黃柏 · 五味子 · 門冬 · 地黃, 風에는 羌活 · 防風, 寒에는 肉桂 · 乾薑 · 附子, 挫閃에는 當歸 · 蘇木 · 沒藥 · 乳香 · 紅花 · 桃仁, 瘀血에는 大黃 · 牽牛 · 桃仁 · 虵蟲, 濕痰에는 蒼朮 · 香附 · 白芷 · 枳實 · 陳皮 · 半夏 · 茯苓, 血氣不行에는 牽牛 · 甘遂, 濕에는 黃柏 · 蒼朮 · 杜冲 · 川芎 · 痰<sup>16)</sup>南星 · 半夏 加快氣藥 등 30종의 약물이 응용되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磁石 · 菟絲子 · 牛膝 · 石斛 · 蒺藜子 · 肉蓯蓉 · 續斷 · 萆薢 · 威靈仙 · 牽牛子 · 破故紙 · 五加皮 · 杜冲 · 橘核 · 胡桃 · 芡仁 · 胡麻 · 鹿茸 · 鹿角 · 羊脊骨 · 黃狗肉 · 豬腎 등의 22종이 요통의 단방으로 응용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醫林撮要』가 症候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단방을 적절히 골라 基本方에 붙여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東醫寶鑑』에서는 症候나 基本方과는 상관없이 요통에 좋은 단방만을 모아놓았다는 것이다. 이들 각각의 장점은 『醫林撮要』는 요통이라는 병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잘 가려서 적절한 약물을 알맞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東醫寶鑑』은 그러한 처방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약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醫林撮要』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지만, 『東醫寶鑑』은 이 땅의 궁핍한 백성을 위해 대중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뒤집어 생각하면 『醫林撮要』는 대중적이지 못하고, 『東醫寶鑑』은 약물의 오·남용을 방관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 6) 鍼灸法

『醫林撮要』에서는 腎腧 · 腰腧 · 人中 · 委中의 4개 穴이, 『東醫寶鑑』에서는 腎腧 · 委中 · 人中 · 肩井 · 尺澤 · 陽陵泉 · 束骨 · 崑崙 · 下膠 · 氣海 · 中膺俞 · 腰俞 · 命門 · 志室 · 行間 · 復溜 등의 16개 穴이 응용되고 있다.

16) 여기서 ‘痰’은 ‘牛膽’을 말하는 ‘膽’과 같은 것으로 그音を 취하여 ‘痰’이라 한 것 같다.

『醫林撮要』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상의 4개 穴은 3가지 상황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그 첫째는 요통에 관한 提綱이라 할 수 있는 맨 처음 문장<sup>17)</sup>에서 모든 요통의 근원을 房勞過度와 負重勞傷에 두었기 때문에 腎腧와 腰俞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腰曲不能伸의 경우이다. 이는 朱震亨의 ‘陽有餘陰不足’론에 입각하여 有餘한 陽의 작용으로 허리가 굽었다고 보고, 陽經의 대표적인 경락인 督脈에서 가장 陽穴이라 할 수 있는 ‘人中’을 취하고 있다. 세 번째는 瘀血인 경우인데, 이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瘀血腰痛의 常用穴이라 할 수 있는 ‘委中’을 출혈시키는 방법이다.

鍼灸法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東醫寶鑑』이 더 많은 穴位가 응용되고 있다. 이는 『東醫寶鑑』이 『醫林撮要』 보다는 요통에 관하여 약재의 응용보다 鍼灸法을 중요시했다는 얘기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구하기 어려운 비싼 약재의 응용보다는 훨씬 손쉬운 치료법으로서,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으로서는 오히려 적절하고도 간편한 선택일 수도 있다. 따라서, 楊禮壽와 許浚의 鍼灸法의 차이는 壬辰倭亂을 전후하여 전쟁 전에 완성된 『醫林撮要』와 전쟁 후에 완성된 『東醫寶鑑』의 시대적 상황차이로 짐작할 수 있다.

## 2. 引用文獻에 대한 고찰.

요통에 관한 인용문헌으로 『醫林撮要』에는 주로 『醫學正傳』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世醫得效方』과 『玉機微義』가 그 다음이며, 『丹溪心法』 및 『古今醫鑑』과 『萬病回春』, 그리고 『和劑局方』, 『丹溪附餘』, 『醫學入門』, 『醫方類聚』, 『仁齋直指』, 『袖珍方』, 『諸證辨疑』, 『東垣十種醫書』, 『三因極一病證方論』의 순으로 모두 15개 문헌이 인용되었다. 『東醫寶鑑』에는 주로 『醫學入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丹溪心法』, 『世醫得效方』, 『東垣十種醫書』, 『古今醫鑑』, 『儒門事親』, 『素問』, 『靈樞』, 『仁齋直指方』, 『三因方』, 『金匱要略』, 『雲岐子脈法』의 순으로 모두 12개 문헌과 ‘單方’에서의 『證類本草』 및 『本草綱目』, 그리고 ‘鍼灸法’에서의 『鍼灸資生經』으로 총 15개 문헌이 인용되었다.

이들 인용문헌에서 『醫林撮要』의 경우는 본디 楊禮壽가 인용한 문헌과 나중에 光海君 卽位年인 戊申年(1608)에 李絡과 李希憲에 의하여 撰하여진 『醫林撮要續集』<sup>18)</sup>에서 보충된 문헌도 포함된 것이다. 순수하게 이 『續集』에만 포함된 인용문헌은 『古今醫鑑』, 『萬病回春』, 『丹溪心法附餘』 등의 3개 문헌이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楊禮壽에 의하여 쓰여진 『醫林撮要』의 인용문헌은 12개 문헌인 셈이다.

그러나, 『東醫寶鑑』에서의 인용문헌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楊禮壽의 인

17) 楊禮壽, 앞의 책, 308쪽.

“雖有六經見候之不同, 或挫閃, 或腎虛, 或瘀血, 或痰, 或濕熱, 種種不一者, 原其所由, 皆房勞過度, 負重勞傷之所致也.”

18) 金洪均, 『醫林撮要의 醫史學的 研究』, 65쪽, 110쪽.

용문헌의 출전은 1차 인용문으로써 거의 정확한 반면, 許浚이 사용한 문헌의 출전은 1차 인용문이 아니라 2차 인용문인 경우가 많아 그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醫論의 부분을 살펴보자. 첫째로, 『醫林撮要』에서 “……, 皆致腰痛, …… , 風熱少, 而寒濕多.”<sup>19)</sup>라 하였는데, 腰痛에 관하여 楊禮壽는 『醫學正傳』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丹溪心法』의 영향을 받은 『醫學正傳』의 「腰痛門」이 『醫林撮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腰痛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陽有餘 陰不足’의 논리가 성립하여야 한다. 즉, 朱震亨의 주장대로 ‘腰痛主濕熱’<sup>20)</sup>의 이론이 대두되어야 한다. 하지만, 楊禮壽는 이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濕熱에 淸熱藥을 많이 쓴 朱丹溪의 처방보다는 楊禮壽는 오히려 溫補藥에 치중하고 있다. 애초에 楊禮壽는 요통을 일으키는 병인분류에서 風寒이나 濕痰은 중요시해도 ‘熱’은 아예 제외시켜버렸다. 따라서, 그는 당연히 ‘風熱少, 而寒濕多’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腰痛通治] 六氣皆能爲痛, 大抵寒濕多, 而風熱少……. (入門)”<sup>21)</sup>라 하였다. 許浚이 인용한 문헌이 『東醫寶鑑』에 표기한대로 『醫學入門』이라고 한다면, ‘寒濕多, 而風熱少’라는 것은 순서만 뒤바뀌었을 뿐이니 李梴의 주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醫學入門』에는 요통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책 전체를 통틀어 이 말이 없다. 즉, 이 말은 楊禮壽의 『醫林撮要』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許浚은 『醫學入門』에 있지도 않은 이 말을 왜 『醫學入門』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許浚이 楊禮壽의 영향을 받아 『醫林撮要』를 인용하고 그 출전이 『醫學入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楊禮壽의 『醫林撮要』가 許浚의 『東醫寶鑑』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醫林撮要』에서 “遇天陰, 及久坐而發者, 濕也, 黃栢·蒼朮·杜冲·川芎·痰南星·半夏, 加快氣藥, 使痰隨氣運.”<sup>22)</sup>이라 했는데, 이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痰飲腰痛] ……痰飲腰痛 宜南星 半夏 加快氣藥佐之.<丹心>”<sup>23)</sup>이라 되어 있다. 이로 보면, 朱丹溪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丹溪心法』을 보면, “……痰積作痛者, 二陳湯 加南星 半夏”라 되어 있다. 물론 二陳湯을 快氣藥으로 본다면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楊禮壽가 快氣藥을 쓰는데는 ‘使痰隨氣運’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丹溪心法』에 되어 있는 대로 快氣藥이 二陳湯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二陳湯의 구성약물이 陳皮 하나정도만이 快氣의 의미를 가질 뿐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醫林撮要』와 『丹溪心法』의 立論은 상당한 차이가 있

19) 楊禮壽, 앞의 책, 308쪽.

20) 朱震亨, 앞의 책, 298쪽.

21) 許浚, 앞의 책, 280쪽.

22) 楊禮壽, 앞의 책, 308쪽.

23) 許浚, 앞의 책, 279쪽.

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東醫寶鑑』에는 그 취지를 같이하여 인용문헌의 근거를 『丹溪心法』에 두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醫林撮要』를 模寫하고도 그 문헌의 출전을 『丹溪心法』에 돌림으로써 생기는 오류이다.

세 번째로, 『醫林撮要』에 “腰曲不能伸, 針人中”<sup>24)</sup>이라 했는데, 이에 대하여 『東醫寶鑑』에서는 “腰曲不能伸, 鍼委中出血立愈.<丹心>”<sup>25)</sup>이라고 했다. 그러나 『丹溪心法』에서는 “腰曲不能伸者, 鍼人中.”<sup>26)</sup>이라 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楊禮壽는 『醫林撮要』에서 瘀血腰痛일 경우에 한해서만 委中을 瀉血시키고 있으며, “腰曲不能伸”의 경우에는 朱丹溪의 ‘人中’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東醫寶鑑』에 있어서는 같은 『丹溪心法』을 따르고 있음에도 ‘人中’이 ‘委中’으로 바뀌고 있다. 더구나, 『東醫寶鑑』에서는 이를 ‘出血’에다 ‘立愈’라고 뒷말을 붙여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許浚은 朱丹溪의 論旨를 왜 바꿨을까? 실제로 그가 委中을 출혈시켜보니 정말로 ‘立愈’라 할만큼 뛰어난 효과가 있어서 그랬을까? 한마디로 그건 아니다. 다만, 그것은 『東醫寶鑑』이 『丹溪心法』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虞天民의 『醫學正傳』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醫學正傳』에서는 “丹溪曰……腰曲不能伸者, 鍼委中立愈”라 하여, 『丹溪心法』을 인용하면서 ‘人中’을 ‘委中’으로 잘못 쓰고 있고, 『丹溪心法』보다 ‘立愈’를 첨가하여 그 효과가 좋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東醫寶鑑』은 ‘出血’이라는 말을 덧붙여 ‘출혈을 시켜야 좋은 효과’가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東醫寶鑑』의 <丹心>은 『丹溪心法』이 아니라, 『醫學正傳』에 의한 2차 인용문헌인 것이다. 결국 ‘人中’과 ‘委中’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楊禮壽의 『醫林撮要』에서는 『丹溪心法』을 1차 인용문헌으로 삼았고, 許浚의 『東醫寶鑑』에서는 『醫學正傳』을 통한 2차 인용문헌의 경우로 생긴 誤謬인 셈이다.

네 번째로, 『醫林撮要』에서 “諸腰痛, 不宜用補氣, 亦不宜峻用寒涼”<sup>27)</sup>이라 했다. 이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腰痛通治] 諸腰痛, 不可用補氣藥, 亦不宜峻用寒涼藥(丹心)”<sup>28)</sup>이라 했다. 언뜻 보기에 똑같은 문장이다. 그런데,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인용된 출전이 ‘丹心’이라는데 있다. 확인하기 위해서 『丹溪心法』을 보자. “凡諸痛 皆屬火, 寒涼藥不可峻用, 必用溫散之藥, 諸痛不可用參, 補氣則疼愈甚”<sup>29)</sup>이라고 되어 있다. 결과적인 내용이야 같은 것이지만, 朱丹溪의 이론은 명확하다. 단순히 요통에는 ‘不宜用補氣, 亦不宜峻用寒涼’하여야 함이 아니다. 朱丹溪는 모든 疼痛의 원인을 ‘火’로 본 것이다. 여기서의 ‘火’는 ‘相火’인 것이다. 相火의 妄動은 곧 ‘陰精’의 不足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滋陰降火’의 治법을 쓰는 것이다. 즉, 陰精이 耗損된 상황이므로 補氣藥을 써서

24) 楊禮壽, 앞의 책, 308쪽.  
 25) 許浚, 앞의 책, 281쪽.  
 26) 朱震亨, 앞의 책, 298쪽.  
 27) 楊禮壽, 앞의 책, 308쪽.  
 28) 許浚, 앞의 책, 280쪽.  
 29) 朱震亨, 앞의 책, 298쪽.



는 안되고, 降火를 시킨다고 相火가 망동함을 생각지 않고 함부로 寒涼藥을 써서는 곤란함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楊禮壽는 왜 단순히 “諸腰痛, 不宜用補氣, 亦不宜峻用寒涼”라고 했을까?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楊禮壽는 요통의 원인으로 ‘火熱’을 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장의 모양이 같다고 해서 그 뜻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許浚은 ‘腰痛通治’에 거두절미하여 옮겨놓음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그 내용을 『醫林撮要』에서 옮겨놓고 출전만 ‘丹心’이라 한 셈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處方에 관하여 살펴보자. 첫째로, 『醫林撮要』에 있는 <一粒金丹><sup>30)</sup>은 ‘腰脅走注疼痛, 如虎咬之狀, 不可忍者’를 治하는데, 『東醫寶鑑』에 “<捉虎丹>治脚氣, 走注疼痛, 不可忍, ……(入門) ○一名一粒金丹(丹心)”<sup>31)</sup>이라 되어 있다. 이는 許浚의 『東醫寶鑑』·「足門」에 脚氣治法으로 쓰는 <捉虎丹>의 내용이 用量만 차이날 뿐 <一粒金丹>의 처방과 같다. 하지만, 『東醫寶鑑』의 내용대로 『醫學入門』이나 『丹溪心法』에 이 말이 없다. 이 두 책에 <捉虎丹>이나 <一粒金丹>도 없을 뿐만 아니라, <捉虎丹>의 一名이 <一粒金丹>이지도 않다. 『醫林撮要』에 있는 <一粒金丹>은 虞搏의 『醫學正傳』과 같다. 결국 <捉虎丹>은 『醫學入門』이 아니라, 『醫林撮要』나 『醫學正傳』에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醫學正傳』은 아니다. 만일 『醫學正傳』일 것 같으면, 위에서도 보았듯이 『東醫寶鑑』의 인용근거를 사용하는 형태로 보아, 『醫學正傳』이 『丹溪心法』에 출전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正傳’이라 하지 않고 ‘丹心’이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入門’이라 했으므로 결국 許浚은 『醫林撮要』에 출전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許浚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醫林撮要』를 참고하여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다. 더구나, 楊禮壽가 주로 참고하고 있는 『醫學正傳』조차도 『丹溪心法』으로 바꾸어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확신은 바로 다음에 있는 ‘一名一粒金丹(丹心)’이라 한 것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앞에서 예상한대로 그 인용근거를 ‘丹心’에 두고 있다. 물론 『丹溪心法』에는 <捉虎丹>은 고사하고 <一粒金丹>도 없다. 「脚氣門」은 물론이고 「腰痛門」에도 없고, 아예 『丹溪心法』 전체를 통틀어 없다. 이로 보아, 楊禮壽와 許浚은 같은 內醫院에서 선후배기간으로 지내면서 楊禮壽의 생각이 許浚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許浚은 이를 극구 부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용량의 간소함이나 약제의 炮製 및 구할 수 없는 약제의 대체 등은 실용성에 있어서 許浚의 뛰어난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醫林撮要』의 <獨活寄生湯>은 ‘風傷腎經, 腰痛如掣, 久不治, 流入脚膝, 偏

30) 楊禮壽, 앞의 책, 309쪽.

31) 許浚, 앞의 책, 303쪽.

枯冷痺, 緩弱腰, 脚攣疼, 除風活血'을 治하는데, 그 註釋에 “諸證辨疑<sup>32)</sup> 去獨活桑寄生 代羌活續斷 名羌活續斷湯”<sup>33)</sup>라 했는데, 『東醫寶鑑』은 [脚氣治法]에서 “氣血虛者, 宜獨活寄生湯, 羌活續斷湯(入門)”<sup>34)</sup>이라 했고, <獨活寄生湯>에서 “<獨活寄生湯>治肝腎虛弱, 筋攣骨痛, 脚膝偏枯, 緩弱冷痺……(回春)”<sup>35)</sup>이라 했다. 『東醫寶鑑』의 <獨活寄生湯>은 『醫林撮要』의 <獨活寄生湯>과 ‘薑三片’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처방은 같고 분량이 다르다. 또한 이를 인용한 문헌의 근거로 ‘回春’이라 했는데, 이것이 『萬病回春』을 의미한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萬病回春』에는 ‘獨活寄生湯’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醫林撮要』의 <獨活寄生湯>에서 “諸證辨疑 去獨活桑寄生 代羌活續斷 名羌活續斷湯”이라 했으므로, <羌活續斷湯>은 <獨活寄生湯>의 변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東醫寶鑑』에서는 “氣血虛者, 宜獨活寄生湯, 羌活續斷湯(入門)”이라 하여, 인용근거를 『醫學入門』에 두고 있으나, 『醫學入門』에는 ‘羌活續斷湯’이 없다.

그렇다면, 『東醫寶鑑』은 사실과 다른 이런 인용근거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었던 말인가? 誤字라 보기엔 오히려 분명하고, 실수였다고 보기엔 앞에서 살폈다시피 너무 많다. 임의로 그랬다고 보기엔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혹시, 원문을 작성한 許浚이외의 다른 사람이 인용근거를 붙였다고 한다면, 이들 인용서적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醫林撮要』의 <補髓丹><sup>36)</sup>은 ‘老人虛弱腎傷, 腰痛不可屈伸’을 治하는데, 이를 『東醫寶鑑』에서는 “<補髓丹> 治腎虛腰痛……(東垣)”<sup>37)</sup>라 하여 용량만 절반으로 줄였을 뿐 구성내용은 같다. 그런데, 이것 역시 인용근거로 삼고 있는 ‘東垣’이 문제다. 李東垣의 저서인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蘭室秘藏』 등에는 ‘補髓丹’이 없다. 더구나 李東垣의 저서가 포함된 『東垣十種醫書』에도 ‘補髓丹’은 들어있지 않다. 만일 許浚이 出典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玉機’라고 표기하여 『玉機微義』에 근본을 두었음을

32) 『諸證辨疑』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東醫寶鑑』의 인용문헌에 『辨疑』가 있으므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東醫寶鑑』의 『辨疑』에 대해서 『朝鮮醫籍通考』에서는 養生書로써 『東醫寶鑑』에 2번 인용되고 있다 했으며, 이를 施肩吾의 傳本人 『養生辨疑訣』 1卷이라 했다.(崔秀漢, 앞의 책, 78쪽) 또한, 『東醫寶鑑』을 통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에서는 元代에 朱震亨이撰한 『傷寒辨疑』라 하고 『東醫寶鑑』에 모두 4회 인용되었다고 했다.(權學澈, 『東醫寶鑑』을 통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 29쪽, 41쪽) 그러나, 『傷寒辨疑』는 宋代의 何滋가 저술한 것(蔡陸仙, 『中國醫藥匯海』, 卷六, 68쪽)으로 이미 佚失(洪元植 외4人,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328쪽)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으며, 『養生辨疑訣』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33) 楊禮壽, 앞의 책, 310쪽.

34) 許浚, 앞의 책, 302쪽.

35) 許浚, 앞의 책, 303쪽.

36) 『玉機微義』에는 ‘百一選方補髓丹’이라 되어 있다(徐用誠輯, 劉純續增, 『玉機微義(文淵閣四庫全書, 762冊)』, 卷三十一, 396쪽).

37) 許浚, 앞의 책, 279쪽.

밝히든지, 아니면 원래의 出典인 『是齋百一選方』의 뜻으로 ‘百一方’이나 ‘是齋’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玉機微義』도, 『是齋百一選方』도, 더구나 『東垣十種醫書』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가까이 있었던 楊禮壽에 의해 <補髓丹>은 전수받을 수 있었지만 그 出典까지 이어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楊禮壽의 『醫林撮要』에 대한 거부감을 許浚은 『東醫寶鑑』에 표시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楊禮壽는 許浚의 진정한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결코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Ⅲ. 結論

이상에서 腰痛을 중심으로 『醫林撮要』와 『東醫寶鑑』을 비교·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楊禮壽와 許浚은 조선중기의 대표적 의학자로 풍미되는 거의 동시대인으로써, 실제적인 의학의 전수가 이루어졌다.
2. 내용에 있어 醫論과 治方に 걸쳐 『醫林撮要』는 『東醫寶鑑』에 많이 인용되어졌다.
3. 사용된 인용문헌은 『醫林撮要』가 『醫學正傳』에 근본을 두고 있는 반면, 『東醫寶鑑』은 『醫學入門』에 근본하여 주로 쓰여졌다.
4. 인용된 문헌의 시대별 분포는 『醫林撮要』가 宋·元·明代에 걸쳐 있고, 『東醫寶鑑』은 東漢에서부터 宋·金·元·明代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5. 『醫林撮要』는 『醫方類聚』와 같은 조선의 醫方書도 참고한 반면, 『東醫寶鑑』은 국내 醫書를 제외시킨 것 같다.
6. 인용된 문헌에 있어서 『醫林撮要』는 그 근거가 거의 분명한 반면, 『東醫寶鑑』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Ⅳ. 參考文獻

1. 楊禮壽, 『醫林撮要』, 黑潮社, 1968, 서울.
2. 虞天民, 『醫學正傳』, 東洋綜合通信教育院, 1989, 大邱.
3. 徐用誠輯, 劉純續增, 『玉機微義(文淵閣四庫全書, 762冊)』, 卷三十一, 麗江出版社, 1988, 서울.

4. 李東垣 외5人, 『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1989, 서울.
5. 李梴, 『原本編註醫學入門(下)』, 南山堂, 1985, 서울.
6. 朱震亨, 『丹溪心法』, 中國書店, 1986, 北京.
7.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文淵閣四庫全書, 734冊)』, 卷十三, 麗江出版社, 1988, 서울.
8. 蔡陸仙, 『中國醫藥匯海』, 卷六, 成輔社, 1978, 서울.
9.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北京.
10.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7, 서울.
11. 洪元植 외4人,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328쪽,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서울.
12. 權學澈, 『東醫寶鑑을 통한 許浚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 慶熙韓醫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13. 金洪均, 『醫林撮要의 醫史學的 研究』, 慶熙韓醫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0.